

인구유입따라 건축 인허가 유형 '부침'

순유입 많을 땐 아파트보다는 단독·다가구주택 선호 작년 단독주택 최다... 최근 순유출로 건설경기 침체

제주지역의 건축 인허가 유형도 인구유입 형태에 따라 부침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순유입이 많았던 2014~17년 사이에는 '제주에서 한달 살기' 등의 영향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인·허가건이 집중됐다. 최근에는 인구 유출로 단독주택 위주로 인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제주지역의 인구 순유입 현황은 2010년 437명, 2011년 2343명, 20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

2014년 1만1112명, 2015년 1만4257명, 2016년 1만4632명, 2017년 1만4005명, 2018년 8853명, 2019년 2936명이다. 올해 1~4월 순유출은 568명으로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타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기간의 도내 건축물 인허가 규모는 2010년 4881세대, 2011년 1만3018세대, 2012년 1만256세대, 2013년 6309세대, 2014년 8805세대, 2015년 1만8690세대, 2016년 2만1596세대,

2017년 1만4163세대, 2018년 7372세대, 2019년 5284세대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 1~4월 이뤄진 인허가는 1780세대다.

이처럼 순유입의 수에 따라 2014~17년에는 건축 인허가가 집중됐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이 기간에 순위 변동은 다소 있으나 다가구주택(소유권자 1인 임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소유권자 다수, 세대별 소유 가능), 아파트 등의 순으로 인허가 승인이 이뤄졌다.

인허가 승인이 가장 많았던 2016년의 경우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8130세대, 다가구주택 7982세대, 연립 4293세대, 다세대주택 3827세대,

아파트 3817세대 등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순유입이 줄면서 단독주택 위주로 인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인구유입이 둔화되면서 도내 건설경기도 침체된 상태다.

면적별로는 1~2인 가구 증가로 60㎡ 이하도 많지만,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인허가에 따른 60~135㎡ 규모에 집중됐다.

지난 4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281세대로 2017년 9월 이후 28개월째 1000세대를 상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도내 주택보급률은 107.0%(전국 104.2%)로 2015년 이후 100%를 줄곧 넘어오고 있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10~12일 '워크인' 면접실시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원활한 신규 채용을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오전 9시~오후 9시) 제주 노형동 투썸플레이스 노형오거리점에서 '워크인(Walk in)' 면접을 실시한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취업 희망자들은 해당 기간 중 별도의 서류 지원이나 정해진 시간없이 자유롭게 방문해 1대1 면접을 받을 수 있다. 사전에 드림타워 채용 홈페이지(<http://careers.jejudreamtower.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한 후 해당 기간 면접도 가능하다.

김진희 인사총괄 상무는 "화상면접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제주지역 지원자들에게 보다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인 면접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20개 정도의 면접 테이블만 설치해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발열체크와 함께 마스크와 멀균 장갑 등을 제공한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채용행사(잡콘서트)는 취소하는 대신 화상면접 방식을 통해 이미 호텔 및 카지노, 리테일 지원자 1000여명의 채용을 확정된 상태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번 워크인 면접과는 별도로 온라인 지원을 통한 화상면접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롯데관광개발이 노형동 투썸플레이스 노형오거리점에서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3일 일정으로 '워크인'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장마철 집중호우·태풍 등 대비 '속도'

서귀포시, 상습 침수피해지역 중심 우수관 준설 완료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등에 대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귀포시는 매년 태풍 내습 및 장마철 집중호우시 집수구·하수관로 내 퇴적물로 인해 배수처리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을 전수 조사해 준설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4월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을 대상으로 토사·낙엽·쓰레기 등 퇴적물이 쌓여 배수처리 기능이 저하된 우수처리 시설물을 조사, 집수구 1500곳·우수관로

8500m에서 퇴적물 73t을 걷어 냈다. 우기 전 집수구 등 하수관로 준설이 완료됨에 따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최소화는 물론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에는 모두 3538억여원의 국비·지방비가 투입된다.

서귀포지역 내 재해위험지구는 > 침수위험 28곳 > 해일위험 7곳 > 붕

괴위험 7곳 등 모두 42곳이다. 특히 올해엔 난산1리·수망3리·신남천·표하천·서성·서성로·애래 등 침수위험 지역 개선사업에 집중한다. 또 신홍1리·토산 등 해일위험 지역에서는 호안정비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계속한다. 서귀포지역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송산1·삼매봉·서홍·산방산·대평·나폴리·분도왓로 등 7곳이다. 올해엔 대평·나폴리·분도왓로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취약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영총기자

무릉2리에 '농산물 체험카페' 세운다

서귀포시 "로컬푸드 직매장·농산물 체험장 등 조성"

대정읍 무릉2리에 '농산물 체험카페'가 조성된다.

서귀포시는 10일 대정읍 무릉2리 마을회와 마을기업인 무릉의갯집 등 지역 내 공동체와 협의체를 구성, 무릉2리에 '농산물 체험카페'를 세운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에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돼 지원받는 국비·도비 등 모두 4억원이 투입된다.

마을 내 폐교를 활용해 조성하는 농산물 체험카페(총면적 301㎡)에는 로컬푸드 직매장·농산물 체험장과 마을카페가 들어선다. 마을회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폐교 건물에 대한 임대 절차를 진행중이다.

로컬푸드 판매장에서는 마을·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도 한 몫 여종의 과일이 판매된다. 농산물

프로그램 체험장에서는 >재철 과일 잼 만들기 >생과일 찹쌀떡 만들기 >장 담기 >청굴효소 담기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마을카페에서는 마을주민·방문객을 위한 팜파티, 마을영화관·음악회 등이 개최되며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릉2리 마을에서는 지난 2013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무릉의갯집의 성공적인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득창출 욕구가 늘었고, 새로운 소득사업을 위한 논의가 지속돼 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농촌지역에 공동체 공유 공간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도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영총기자

단풍나무 등 염색효과 우수 식물 7종 선발

제주농기센터, 30일까지 에코프린팅 생활소품 전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제주 자생식물을 활용해 생활소품에 쉽게 에코프린팅 염색할 수 있는 단풍나무 등 우수 식물 7종을 최종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발된 식물은 면, 인견 등 6종의 모든 원단에서 공통적으로 염색효과가 우수한 단풍나무, 유칼립투스 3종, 붉나무, 예덕나무, 상수리나무 등이다.

제주농기센터는 또 양파껍질을 활용한 염색원단에 7종의 식물을 염료로 티셔츠, 마스크 등 생활소품 5종, 스카프 3종에 대한 염색방법과 전자레이저를 활용한 간편염색 방법에 대해서도 실증했다.

농기센터는 오는 30일까지 농촌생활관에서 '에코프린팅 천연염색 실증' 결과물인 원단 및 생활소품 50점을 전시해 에코프린팅 천연염색 홍보에 나선다. 더불어 오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에코프린팅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 자생식물을 이용한 에코프린팅 활용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에코프린팅(Eco-Printing)'이란 식물의 잎, 꽃 등의 모양을 직물이나 가죽 등에 형태 그대로 남기는 염색법으로,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누구나 염색이 가능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은지기자

제주농기센터는 또 양파껍질을 활용한 염색원단에 7종의 식물을 염료로 티셔츠, 마스크 등 생활소품 5종, 스카프 3종에 대한 염색방법과 전자레이저를 활용한 간편염색 방법에 대해서도 실증했다.

농기센터는 오는 30일까지 농촌생활관에서 '에코프린팅 천연염색 실증' 결과물인 원단 및 생활소품 50점을 전시해 에코프린팅 천연염색 홍보에 나선다. 더불어 오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에코프린팅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 자생식물을 이용한 에코프린팅 활용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에코프린팅(Eco-Printing)'이란 식물의 잎, 꽃 등의 모양을 직물이나 가죽 등에 형태 그대로 남기는 염색법으로,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누구나 염색이 가능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은지기자

홀로사는 노인 냉·난방비 지원

제주시는 여름철 폭염과 혹한기에 홀로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드림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읍·면·동과 6개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에서 6월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기초연금대상자 중 노인맞춤돌봄대상자로 선정된 2350명으로, 월 최대 8만5000원까지 6개월간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시와 업무협약을 한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가 지원 대상자에게 농협에서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를 발급한다.

문미숙기자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선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암 유옥종 010-5015-1951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충센터

현장실무 전기공사 기능인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대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근시일 모집 마감**

실업자 / 구직자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학생 등 제외

교육기간
 7월초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 등

※ 필요서류: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숙) 취업 |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won.com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